

금융당국 채안펀드 투입 효과... 여전채 금리 다시 하락세

금투협, 여전채 금리 연 5.76%
지난 8일 6.09% 이후 0.33%p ↓

美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국내 기준금리 상승세 둔화 예상
여전업체 “1년간 조달비용 급증
금리 안정돼도 부담 여전할 것”

여전채 금리가 연 6%를 돌파한 이후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채권안정펀드 투입과 함께 미(美)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기조가 한풀 꺾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처도 여전채 금리 진정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여전채(AA+, 3년물)의 채권 금리는 연 5.76%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지난 8일 연 6.09%까지 치솟은 뒤 0.33%포인트(p) 떨어졌다. 여전채 금리가 5.7%선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난달 18일(5.75%) 이후 한 달 만이다.

여전채 금리가 떨어진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채안펀드 투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 P) 매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회사



여신전문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추가 하락(채권값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스스

채, 기업어음(CP), 여전채 등의 발행과 유통이 소폭 개선된 것이다.

추후 채권시장 안정화와 함께 여전채 금리인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둔화 예고와 함께 금융당국이 여전채 진정을 위해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연준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둔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4일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느린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미 연준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대과적 정책을 고수했지만 추후 속도 조절

을 할 것이라 관측이 등장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단행하면 국내 기준금리 상승세 또한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면 여전채 금리 또한 인상 속도가 느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또한 여전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을 필두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모여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전채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여전

채 편입 한도를 8%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금 유연화를 위해 현행 12%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전업체는 여전히 울상이다. 여전채 금리가 떨어져도 조달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축소에 대출 금리 인상도 어려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1년 사이 여전채 금리 인상 속도는 가팔랐다. 이달 최고치를 기록한 6.09%는 전년 동기(2.47%) 대비 3.62%p 상승한 수준이다. 조달 비용이 1년새 2배 넘게 상승한 것. 다만 카드론 등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법정 최고금리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카드론 등 여전사 대출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라고 불리며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건전성 유지 기조에 고신용 차주 중심의 대출을 단행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1년 사이 조달 비용이 대처하기 어려운 속도로 상승했다. 여전채 금리가 다소 안정되더라도 조달 비용 부담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금융결제원 페이먼트 인사이트 세미나

금융결제원이 오는 29일 국지급결제학회·디지털금융포럼과 공동으로 ‘페이먼트 인사이트(Payment Insight)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세미나의 주제를 ‘IT 기술의 진화와 금융결제시장의 변화’로 정하고, 금융기술 사례를 소개하고 미래 트렌드를 조망할 예정이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4개 강연세션과 발표주제 중 한 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패널토론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카이스트 류혁선 교수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2세션에서는 BNK경남은행 김진한 상무가 금융권의 로봇자동화기술(RPA) 도입사례 및 성과를 발표한다. /나유리 기자

소호영업부 기업대출 신규 2만건 돌파

신한은행, 수도권 개인사업자 대상

신한은행은 디지털 소호(SOHO) 영업부를 통한 기업대출이 신규 2만건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2월 개점한 디지털 SOHO 영업부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상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대출 및 신한은행의 비대면 SOHO대출(솔루션 사업자대출, 신한퀵정산대출, 팽겨요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차별화된 고객 관리와 맞춤형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고객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다.

한편 디지털 SOHO영업부는 지난 15일 기준 은행 전체 비대면 보증서 신규 대출 중 약 74% 이상을 처리해 기존 오프라인 영업점의 업무량을 크게 경감시켰다. /나유리 기자 yul115@

디지털 SOHO영업부는 전담 고객을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상품 커버리지를 늘릴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SOHO 영업부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은행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영업점 직원에게는 업무량을 경감시켰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개인사업자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KT, 더존비즈온 등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은행

금융위-금감원 25일 ATS 인가설명회 개최

금융당국이 다자간매매결제회사(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 ATS-정규 거래소 간 경쟁체제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를 개선하고, 증시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TS 인가설명회를 오는 25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다.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한다.

ATS 인가설명회는 ▲ATS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 ▲인가심사 방향 ▲신청일정 등 추진계획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으로 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WON뱅크 주식매매서비스 출척 하세요” 케이뱅크 “최대 2만2000원 받으세요”

우리은행-한화투자증권 이벤트

우리은행은 제휴사인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우리WON뱅크 주식매매서비스 출척체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에 출시한 우리WON뱅크 ‘주식매매서비스’는 직관적인 UI와 저렴한 수수료(0.015%)로 국내 주식 거래를 하고, 그래프로 쉽게 표현한 실시간 시장 현황 등의 투자 정보가 특징이다. ‘주식매매서비스’는 출시 이후 기능을 개선시켜 증권계좌 개설 전에도 주식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으며 새롭게 웹툰형 리포트, 핫토픽 기능 등을 추가해 유익한 주식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고객 누구

나 우리WON뱅크 내 ‘주식매매서비스’에 매주 출석하고 웹툰형 리포트를 보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2월 25일까지 ‘우리WON뱅크 주식매매서비스 출척체크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에게 ▲다이스가습기 ▲LG 스탠바이미 ▲아이폰14 프로 ▲루이비통 포쉐트 키리가미 ▲맥북 프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매주 3000명을 즉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도 지급한다.

제휴사인 한화투자증권도 우리WON뱅크 ‘주식매매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국내주식 및 거래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번개장터 계좌 연결 프로모션

케이뱅크가 취향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손잡고 최대 2만2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번개장터와 제휴를 기념해 내년 4월 30일까지 두 가지 이벤트로 진행한다.

우선 ‘신규 가입 이벤트’로 케이뱅크 계좌가 없는 고객이 번개장터 앱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케이뱅크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만원을 지급한다.

계좌 개설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바로 케이뱅크 계좌에 현금 만원이 입금된다.

두번째는 ‘계좌 연결 이벤트’로 신

규 고객은 물론 기존 케이뱅크 계좌가 있는 고객이 번개장터 앱의 자체 안전결제 서비스 ‘번개페이’ 연결 계좌에 케이뱅크 계좌를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계좌 연결 후 내년 4월까지 5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2000원 상당의 번개포인트가 실시간 지급될 예정이다. 매월 1회 한도로 매달 이벤트 참여 시 총 1만 2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케이뱅크 계좌가 없는 고객이 번개장터 앱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번개페이에 연결계좌로 선택해 두 가지 이벤트에도 두 참여하면 최대 2만 2000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인니 2개 법인 코로케이션 협력체계 구축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과 KB국민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B파이낸시아멀티파이낸스(KB FMPF)가 코로케이션(Co-location)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케이션은 서버를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위탁하여 초고속인터넷 백본망에서 고객의 서버와 통신장비를 직접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KB FMPF는 자동차·오토바이·내구재 할부금융 사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사로 2020년 KB국민카드가 80%의 지분을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됐다. /나유리 기자